

한국원자력학회 제39대 수석부회장 입후보 신청서

□ 인적사항



성명	최 기 용 (崔 基 鎔)
소속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위	원자력안전기반연구소장

□ 학력사항 (최종학력사항만 기재)

학교명	전공분야	학위	졸업년도
KAIST	원자력 열수력	공학박사	1998

□ 경력사항 (대표경력 5개 이내)

기간	근무처	부서/직위	담당업무
2021.7 ~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기반연구소/소장	원자력안전기반연구 총괄
2019.7. ~ 2021.6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중성자연구단/단장	하나로운영, 연구로수출 총괄
2016.1 ~ 2019.6	한국원자력연구원	열수력안전연구부/부장	열수력안전연구 총괄
2015.3 ~ 현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원자력시스템공학과/교수	전공책임/스쿨 대표교수
2025.6 ~ 현재	OECD/NEA	원자력시설안전규제위원회(CSNI)/의장	원자력안전 규제 국제협력 총괄
2022.1 ~ 2024.3	IAEA	TWGRR 위원	연구용원자로 운영 선진화

□ 활동 내역

1. 한국원자력학회 활동 내역

기간	역할	담당업무
2026.1.1. ~ 현재	제38대 임원 (부회장)	학회장 보좌
2025.1.1. ~ 2025.12.31	제37대 임원 (특임이사)	학회 특임이사
2023.9.1. ~ 2024.12.31	제36대 임원 (특임이사)	학회 특임이사
2022.9.1. ~ 2023.8.31	제35대 임원 (사업이사)	학회 사업이사
2024.9.1. ~ 현재	원자력 열수력 연구회장	원자력 열수력 연구회 총괄
2016.9.1. ~ 현재	제24대 ~ 제28대 직선 평의원	평의원회 활동
2025.1.1. ~ 현재	포상 및 장학위원회 위원	포상 심의
2015.9.1. ~ 2021.8.31	NET 학술지 부편집장	NET 부편집장

(예 : 임원, 평의원, 연구부회장, 편집위원, 좌장 등의 활동)

2. 기타 활동 내역 (3개 이내)

기간	역할	담당업무
2025.8 - 2026.5	OECD/NEA AI Workshop	NEA-KAERI-KNS 공동주관 워크숍 총괄
2024.4 - 2025.9	NURETH-21 TPC Chair/WORTH-11 General Chair	학술대회 기술조직위원장
2025.9 - 현재	한국유체공학학술대회(NCFE) 상임이사	제15회 NCFE 개최 지원

(예 : 유관기관 위원회, 이사회, 자문활동 등의 활동)

<신뢰받는 원자력, 글로벌 원자력학회로의 도약>

존경하는 한국원자력학회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는 선배 회원들의 헌신과 현재 회원, 임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토대를 닦아온 선배들의 땀과, 지금도 학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는 2029년 설립 60주년을, 한국 원자력이 세계 무대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원자력은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AI 시대의 첨단산업 전력 수요 증가라는 과제 속에서 국가 전략기술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도약은 기술적 자신감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확고한 책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통, 국민의 신뢰가 함께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미래가 열린다고 믿습니다. 원자력의 기회가 커진 만큼, 우리 학회의 책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이에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자력의 가치를 객관적 데이터와 전문성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안전, 폐기물, 경제성, 수용성 문제도 정직하고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우리 학회가 특정 분야나 기관의 이해를 넘어, 산·학·연·관·규제기관이 함께 토론하고 협력하는 열린 전문가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원자력학회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학술단체로 도약하는 것,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학회 운영 철학의 핵심입니다.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된다면 학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과학적 근거로 국민과 소통하는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찬반의 구호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 전문가적 양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원자력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되, 안전, 폐기물, 비용, 수용성 문제도 정직하게 답하여 정치적 편향을 피하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품격과 신뢰를 높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SMR, 계속운전, 고준위방폐물, AI 활용, 원전 수출 등 핵심 현안을 다루는 학회 차원의 정례 포럼과 전문가 브리프를 운영하여 한국 원자력계의 균형 잡힌 목소리를 국내외에 전달하겠습니다.

둘째, 연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학술대회를 개방형 학술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NET의 국제적 위상과 학회가 쌓아온 학술 역량을 살려, 연차대회를 명실상부한 국제 학술행사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해외 학회와의 공동 특별세션, 국제기구 초청세션, 산업계·규제기관·젊은 연구자 세션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연구회 간 융합 논의를 활성화하여 기존 전문 분야의 깊이는 유지하면서, SMR, AI, 디지털 기술, 비경수로, 방사선 이용, 안전규제, 정책 등 새로운 의제를 폭넓게 포용하는 개방형 학술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젊은 회원과 산업계가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기반, 회원 중심의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학회의 미래는 젊은 회원에게 있고, 학회의 오늘은 산업계와 함께입니다. 학생과 신진 연구자를 위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 멘토링, 발표 기회, 학회 내 성장 지원을 확대하여 글로벌 감각을 갖춘 차세대 원자력 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산업계의 기술, 전략 담당자로 구성된 산업계 자문위원회를 결성하여, 원자력 산업 현장의 수요가 학회에 시차없이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의 학회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술대회 등록, 발표, 심사, 자료 공유, 회원 정보 관리 등 주요 서비스를 개선하고, 회원들이 학회 자료와 전문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네째, 국제 원자력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학회로 우리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입니다.

IAEA, OECD/NEA, ANS, ENS 등 주요 국제기구 및 해외 학회와의 공식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원자력 의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국제 원자력 정책과 기술 기준 논의의 중심에서 더욱 적극적인 국제협력과 학술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원자력 재도약의 시대에 한국원자력학회는 과학적 신뢰의 중심, 지식 혁신의 중심, 미래세대 양성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학회가 국내 원자력계를 넘어 글로벌 원자력계를 선도하는 지식 플랫폼이자 싱크 탱크로 도약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5. 21.

성명 : 최 기 용

